

# 소수자가족 분석: 한·중·일 비교를 통한 ‘사회적 인정 질서’의 반성적 재구성

최연실(상명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중심축으로 하여 한국·중국·일본의 사회적 소수자가족의 실태와 경험, 이들을 바라보는 다수자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한·중·일에서의 다수와 소수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재구성을 시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여건과 현실적 토대 위에서 통국가적인 동아시아 가족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인 한·중·일 3국의 대표적 소수자가족, 즉 한국에서의 화교, 중국에서의 조선족, 그리고 일본의 재일코리안은 한·중·일 3국 사이의 역사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집단이다. 이들 소수자 집단이 각 국가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들 국가의 사회적 인정질서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 대상이다. 그들은 동아시아 3국의 국민국가 속에서 유·무형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는 화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와 뿌리 깊은 편견을 지녀온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 화교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세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화교는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과 배제 속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 화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갖가지 제약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의 감소와 화교공동체의 약화,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집단적 정체성의 위기라는 이중, 삼중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이런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무수히 많은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비교적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소수민족의 자치 운동 등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도 한족 중심의 중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한·중 수교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조선족은 그들만의 독립된 자치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 소수자’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소수자’는 아니었으나 한·중 수교와 중국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의해 한국으로 오거나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로 변모하였다. 일본사회는 세계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일외국인, 특히 재일코리안에게 정치적, 법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차별을 강제화하는 이질적 성향이 강한 사회이다. 정치권력자라든가 우익세력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가족, 특히 인원수가 60여 만 명으로 가장 많은 재일코리안을 차별해 왔기 때문에, 재일코리안은 일본 사회 내에서 법률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 한·중·일 3국 내에서 모두 소수자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다수와 소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사회적 인정질서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받는다.